

관동대 리전 : 다름작가. 6661.

피락 죽.

Pain.

하나둘로리 작곡. (국제사격중).

Pleasure.

반쪽이 안된다 / Pain을 느낀다.

도화인. (도화인 변조판)

(정음표).
14도 1시간
도화인 2507.

Pain.

" 삶의 지혜를 '죽음'에게 묻다~! " ; 죽음학의 실체와 의미
< 강의 참고 자료 - 죽음학 교본 중에서 발췌 >

Norman S.
(상상성).
죽음

강사 : 김미현 (upran@daum.net)

고통을 억제하면
기쁨도 느낄 수 있다.

죽음은 인생의 의미 있는 면이며, 성장을 촉진하는 단계이다. 죽음을 연구하고 체험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자기존재를 풍요롭고 의미 있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죽음을 인생의 완전을 이룩하는 데 절대 필요한 구성요소로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 그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 1984)

키멜
불완전성 평가.
금명호 수 많은
영계가 있다.

• 죽음학 : 죽음학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명칭에서 보면, 생-사-학, 사-생-학으로 분류할 수 있다. '생사학'과 '사생학'의 차이는 마침표가 '사'에 있는가 아니면 '생'에 있는가에 있다. '생'을 '사' 앞에 두어 강조를 하면 자연스럽게 '잘 삶'에 가치를 두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는 잘 살아야 잘 죽는다는 의미가 전제되어 있어, '웰빙(well-being)'이 곧 '웰다잉(well-dying)'의 등식으로, 죽음이 지닌 가치와 의미가 '생'의 의미적 범주로 예측되어 '사' 고유의 의미가 약화 될 경향이 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나는 누구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죽음에게 물어봄으로써 삶의 소중함과 훌륭함을 실천해 가는 것이 죽음학의 종지(宗旨)라고 한다면, '오늘이 마지막이라면'이라는 '사'의 한계 상황을 '생' 앞에 두면, '생'의 의미가 '사'의 가치와 의미적 범주로 예측되어 '사'에서 '생'의 의미인 '삶의 우선순위'와 '소중함'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게 되어 주체적 결단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런 점에서 죽음학에서는 '생사학' 보다는 '사생학'적 표현이 죽음학을 실천해 나가는 데 더 적절해 보인다. 둘째, 죽음학(사생학)의 명제를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는 인간의 실존적인 고뇌와 고통을 어떻게 대면하고 대처할 수 있는지, 그 실천의 방법과 기술을 제공해주는 학문"으로 정의한다면, 죽음학은 자연스럽게 인간학(Anthropology)을 토대로 형성하게 된 학문이 된다. 왜냐하면 인간의 실존적인 고뇌와 고통을 겪는 주체는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직면-대면-대처할 수 있는지를 탐색 연구하고 실천·제시하는 것이 학문의 소임이기 때문이다.

이해가 가지 않는 죽음
개인/사회적
이데올/이데올.
: 625.
관행.
사생학의 역사,
우리 죽음의 시간

• 고통 : 한계상황에 직면한 인간의 고통은 신체적 고통을 넘은 실존적 고통에 더 가깝다. 고통의 주체는 1인칭이다. 고통은 주체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만약 고통이 3인칭적 분석의 대상이 된다면, 고통을 나타내는 주체의 고유성(자율성)과 의미성이 상실된다. 차이와 다름을 나타내는 개인의 고통이 3인칭 분석가의 관점(동일성)으로 회귀 된다면, 그 차이와 다름은 탈색되고 정형(도식)화된 언어-표상만 남게 된다. 그리고 그 고유성 대신 동일성의 폭력만이 개인에게 덧입혀진다.

토스토예프스키.
48.12.22.
수원병원.
정병록, 크리스틴.
배리

고통·고뇌의(of) 심적 태도가 어떻게 실존적 삶으로 전회될 수 있는가? 재귀동사로서의 "통증과 고통, 고뇌의(of) 심적 태도"는 이제 더 이상 통증과 고통, 고뇌를 제거하거나 거부하거나 대상화하지 않는다. 오히려 통증과 고통, 고뇌를 자신의 실존적 삶으로 받아들이고 전회시킨다. 3인칭의 사건과 대상(타자)을 1인칭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전회'시킨다는 것, 저들의(대상화된) 문제(죄)를 자신의 문제로 연결시키는 실존적 태도가 인문치유의 다른 이름이다. 고통은 주체의 반응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 현상이 증상이다. 그런 의미에서 고통과 증상은 없애는 대상이 아니라 그것이 표시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자문하면서 의미화할 때 주체로 돌아가게 하는 계기적 사건이 된다. 이때 비로소 인간은 상실과 죽음으로부터 당하는 '수동적 객체'가 아니라, 묻고 결단하는 '능동적 주체'가 된다. 그 때 비로소 인간은 윤리적 인간이 된다. 이제 고통은 주체적 삶의 의미화로 전환된다.

소리코
복녀 만들기.

멜라도인 (정음표).
(왕노라)

• 주체성 : 상실과 죽음의 한계상황은 '자기됨으로 발전'한다. 한계상황은 '의미적 자아정체성'과 '자

기됨'의 실존으로 안내한다. 실존에는 세 가지 비약(초월)이 수반된다. 첫 번째 비약은 '자기이탈(Selbstdistanz)'이다. 이는 인간이 자기 자신과 거리를 둠으로써 자신의 개별성을 인식하게 되는 단계로서, 자신의 현실존재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두 번째 비약은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자기의식(Selbstbewusstsein)과 자기초월(Selbsttranszendenz)을 통해 수행된다. 여기서 인간은 상황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자신의 고유한 가능성과 자신의 부족함을 의식하게 되며, 이러한 고통스러운 난파를 경험함으로써 자신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한계상황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자각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은 결코 물릴 수 없으며 그대로 존속한다는 사실 또한 의식하게 된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파국이 삶의 발판을 다시 획득하는 도약판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비약은 '실존적 결단과 실존의 장악(Ergreifen der Existenz)'을 통해 수행된다. 비약은 실존적으로 반성된 가능성들을 개별적인 것으로 이해해 자신의 것으로 만들 때 발생한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자기 행위의 길을 결단함으로써 실존을 장악하게 된다. 이런 비약을 통해 인간은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자기 자신이 되며, 자신의 행위를 개별적인 요구로서 경험하게 된다. 세 번째 실존으로의 비약의 단계에서 개인은 스스로 자기 자신의 삶의 의미를 설정하게 된다. 무미건조하게 보였던 외부 세계의 객체가 자신에게 들어와 비로소 충만한 의미망으로 형성된다. 이 의미망의 형성은 비합리적이지만 불합리적이지는 않으며, 비논리적이지만 반논리적이지는 않다. 이제 개인은 자신의 실존을 위해 결단할 수 있는 자유 속에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 **결단** : 인간이면 누구나 살아가면서 우연히 조우하는 사건과 사고, 상실과 죽음을 회피할 수 없다. 우연성과 불확실한 한계상황으로부터 피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라면, 이제 인간은 그 한계상황과 대면하고 직면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직면의 기술과 힘을 기를 때 인간은 더 이상 수동적이고 객체적 존재가 아니라, 운명을 주체로 받아들이고 결단할 수 있는 주체적 인간으로 전환된다. 그래서 실존정신분석에서는 고통을 명사형에서 동사형으로 실천될 때 주체가 형성된다고 본다. 우리가 죽음과 함께 산다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명(命)의 길을 선택하고 결단하여 실천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분석가는 내담자의 주체성을 내담자에게로 돌려주어야 한다. 내담자의 주체성을 분석가의 것으로 자기-동일시해서는 안된다. 죽음학과 실존정신분석에서는 윤리의 목표를 내담자의 객체적 수동성이 주체적 능동성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분석가의 주체적 능동성을 내담자에게 양도(판단중지, 또는 능동적 수동성)함으로써 내담자로 하여금 타자의 시선과 답습한 문법 체계로부터 벗어나 자기만의 고유한 문법체계로 자각하고 결단하여 주체로 돌아가게 하는 것에 둔다.

• **실천** : 인간은 살면서 실존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이는 무엇을 받아들이고, 거부하고, 생각하고 느낄 것인지, 또 자신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자신이 결정한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의미이다. 만일 이러한 책임을 피한다면 '잘못된 신념'을 갖게 되거나 진실하지 않은 자기성을 지니게 된다. 예컨대, "나는 이것을 처리해야 해"라는 말 대신, "만일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피해를 보기 때문에 하는 것이야"(강박증적 피학증적 행동) 하고 수동적인 희생양의 존재가 된다.

실천은 지속적이어야 한다. 갑작스러운 깨달음(돈오頓悟)는 없다. 점진적인 수행과 훈련(점수漸修)만이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이다. 실천(praxis)은 자아 중심의 '의필고아'를 내려놓고 보편적 자기성을 확립해 가는 과정이다. 즉 자아가 탈각되고 그 공백과 부재의 자리에 타자가 초대된다. 주체, 결단, 실천은 자신을 비우는 방식으로 타자와 연결되는 것을 의미한다. 죽음교육은 죽음학의 실천이다. 실천은 정태적이고 고정적이지 않다.

죽음학에서는 실천을 자신의 한계적(운명적) 조우(tuche)를 통해 진정한 자기성을 확립하는 것에 그 목표를 둔다. 예컨대, 분석가는 안정된 환경에서 내담자가 두려워하고 있는 바로 그 일을 내담자가 스

스로 하도록 하거나 혹은 그런 일이 또 일어나기를 바라도록 하면 몸의 본능은 항상성과 평형성의 원리에 의해 안정성을 지향하게 된다. 즉 공포가 역설적인 소망으로 바뀌게 된다. 안정된 상태에서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불러일으켜(회상) 말을 하게 하면, 앞으로 무엇이 될 것인지를 소망하는 것으로 재구성해서 말을 하게 된다. 이때 우리의 인지는 그때 당시에 사건과 동일시된 자연(충동)감정을 거리를 두고서 바라보게 된다. 이때 인지는 자연(충동)감정에서 '인지감정'으로 전환된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 상태가 어떤지 표현을 해봄으로써(정서의 재처리, 또는 감정의 재구성) 새로운 의미와 통제감을 획득한다. 직면한다는 것, 그것은 끊임없이 감정을 수정하면서 시냅스의 탄성을 강화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 **교육** : 죽음교육은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나는 누구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명제 앞에 삶의 소중함과 훌륭함이 무엇인지를 죽음에게 물어봄으로써, 세대를 넘어 지속적으로 사람의 길, 인간의 길을 실천해 나가는 학문이다.(중용에서는 교육의 의미를 修道之謂教, 參贊化育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죽음학에서는 죽음교육의 특성을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해서 접근한다. 첫째, 신체생물학적인 죽음교육으로부터 의미-의지적 가치지향성의 교육으로, 둘째, 생애주기별죽음교육 ; ①생애주기별(신체생물학적인 단계의 구분이 아닌, 인품과 정신성, 삶의 관계망에서 발달 생성되는 과정) 상실과 죽음의 의미, ②생애주기별 상실과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와 특성, ③생애단계별 인지적 특성에 따른 죽음교육, ④생애주기별단계에서 노년기 다음에 임종기의 특별한 마무리(종지법, 구두점 찍기, 삶의 의미를 비로소 발견) 등이다.

• **치유** : 죽음학은 인문치유이다. 상처가 상흔으로, 상흔에서 성흔으로 이행한다.이는 자아중심에서 보편적 자기성으로의 이행을 의미한다. 치유는 본성을 왜곡시키지 않는다. 치유(healing)는 내담자가 중심이 되어 내담자 스스로가 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치유의 방법을 능동적으로 선택해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치유는 외과적인 수술요법이나 약물치료가 아니라 온전히 내면에 깃든 생명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온전히 드러내는 과정을 말한다. 치료와 치유의 극명한 차이는 그 접근 방법이 외부적인 것에서 수단과 방법으로 적용하는 것과, 존재의 내면 깊은 곳에서 자신의 참다운 본질인 존재성을 확인하고 그 생명성이 온전히 스스로 발현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의지와 고집, 아집, 저항, 묶여있는 감정과 관계를 풀어놓고 용납하는 과정의 차이이다. 왜 죽음교육은 치유가 되는가? 그것은 자기중심의 의필고아(意必固我)에서 공명정대(公明正大)한 보편적 인륜성으로 전환하기 때문이다.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는 자신의 본성 자각과 발견, 이해와 초월, 그리고 연결과 의미화에서 가능한 실천영역이다.

< 자기 초월 척도 검사지 >

1. 내가 즐길 수 있는 취미나 관심 분야가 있다.
2. 늙어가는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있다.
3. 가능하다면 다른 사람과 사귀거나
모임 활동에 참여하려 한다.
4. 현재 생활 상황에 잘 적응하고 있다.
5. 나의 신체적 능력이 변화하는 것에 잘 적응하는 편이다.
6. 나의 지혜나 경험을 다른 사람과 나누려 한다.
7. 내가 과거에 경험한 일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8. 어떤 방식으로든 나보다 어린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
9. 무엇인가를 배우고 성장하는 데 관심이 있다.
10. 한때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한편으로 제쳐두기도 한다.
11.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인다.
12. 나의 영적 신념에서 의미를 찾는다.
13. 도움이 필요할 때는 흔쾌히 받는다.
14. 나만의 삶의 속도를 즐기고 있다.
15. 과거에 이루지 못한 꿈이나 목표를 가슴에
간직하고 있다.